

Contents

I. 중소기업 경기전망	1
II. 이슈브리프	2
원자재 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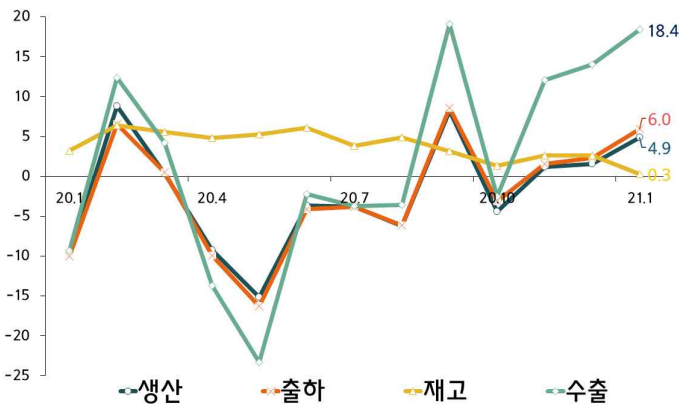
III. 중소기업정책연구	4
중소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을 통한 회생지원 방안	
국내외 민간공공 납품대금연동 사례 및 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외사례 비교	
V. 쉽게 읽히는 경제	7

중소기업 경기전망

동향

수출	생산	출하	재고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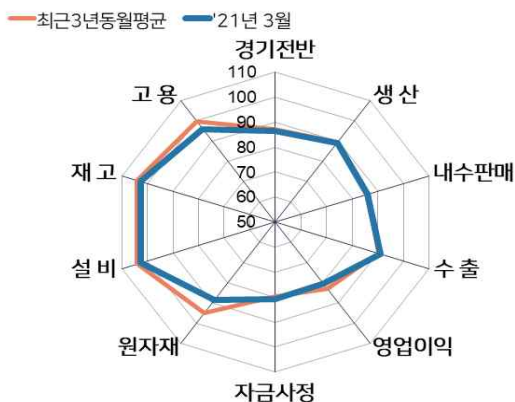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 '21년 1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
 - 對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주요국 수출 증가율 상승세 유지
 - * (전년동월대비) 對중 국: +2.5% → +33.0%
對미 국: +17.3% → +13.3%
- '21년 1월 중소제조업 생산·출하 지수 증가 및 재고 지수 감소로 회복세 유지
 - 다만 '21년 1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9.6%로 전월 대비 Δ0.3%p, 전년 동월대비 Δ1.0%p 하락

전망

경기전반	생산	내수판매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설비	재고	고용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 '21년 2월 경기전망지수는 76.2, 전월대비 4.3p 상승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완화 및 영업시간 연장 등이 전산업 체감경기에 긍정적 영향
 - 중소제조업의 경기전망은 86.3으로 전월대비 9.7p 상승 (전년동월대비 +6.9p 상승)
 - 최근 3년간 동월 SBHI* 항목별 평균과 비교한 결과 경기전반은 악화 예상이나 수출·자금사정·설비·재고·고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 기대
- * 100 초과시 긍정 전망 / 설비, 재고, 고용은 역계열 해석

원자재 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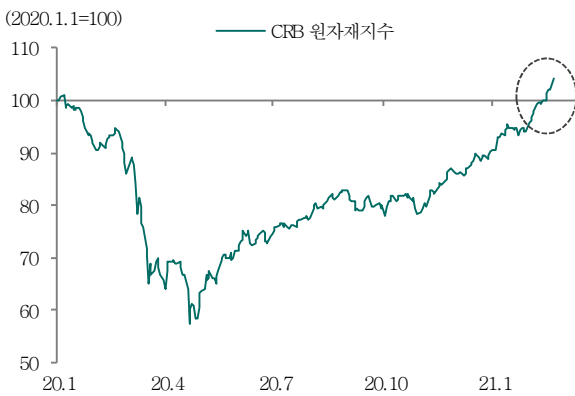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전규연

I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

■ CRB지수*, '20.4월 저점 대비 약 78% 상승

* 국제 원자재 조사회사 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발표하는 지수(곡물, 원유 등 상품 선물가격을 산술평균해 계산)

<작년 연초 수준을 회복한 CRB원자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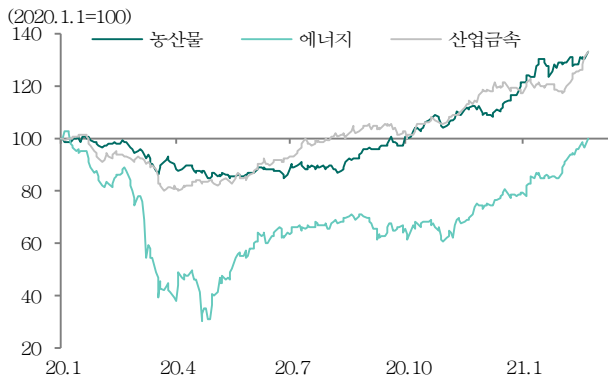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 백신공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정상화 기대감, 재정·통화정책의 지원사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지지

■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타이트한 수급 환경”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와 업종을 막론한 충격이 나타났고,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미래의 수요·공급 예측 어려움
- 원자재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앞단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농산물과 산업금속을 중심으로 가격상승>



주: S&P GSCI 인덱스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II 원자재 시장의 전망과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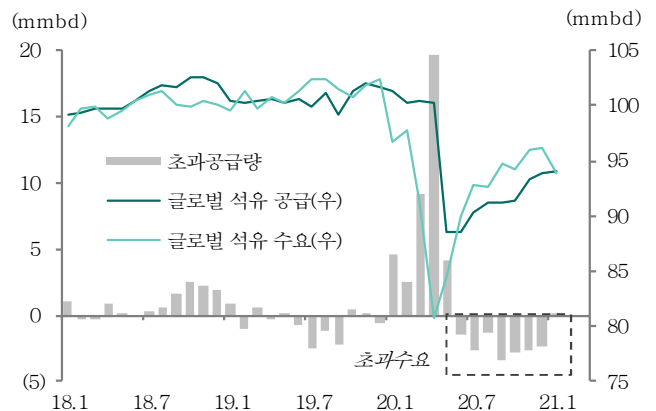
■ 코로나19 충격 이후 농산물·산업금속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 올해 유가는 배럴당 \$60 수준을 넘어섬

- 원유시장은 항공 수요가 악화돼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부진
- 美와 OPEC+*, 원유 생산량 제어, 타이트한 수급환경 조성
* 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대체
- 美 텍사스 지역 한파로 대규모 생산차질, 유가상승

■ 美-사우디 관계 형성 과정도 유가의 단기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듯

- 사우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언급
- 이란과의 핵 합의 복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美-사우디 동맹 약화 우려가 불거짐
- 사우디는 이란과의 힘겨루기, 에너지 정책 조정 등 對 중동 정책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양국의 관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나,
-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친밀했던 관계에서 중립적인 자세로 사우디와 이란을 저울질할 공산이 큼

<글로벌 원유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상황>



자료: Thomson Reuters, 하나금융투자

■ 결론적으로 국제유가를 견인하는 것은 ①공급 측면의 생산량 제어 ②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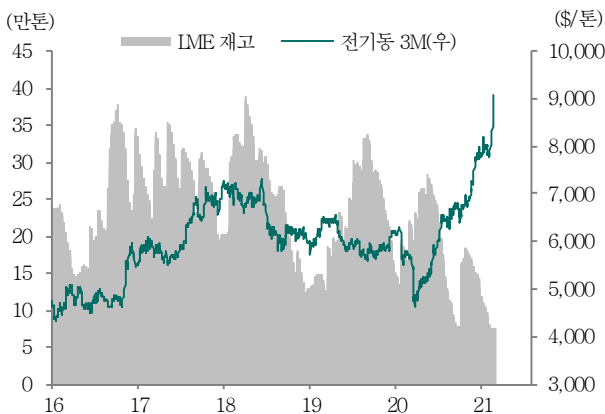
■ 글로벌 수요 회복과 인프라 정책은 산업금속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전망

-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투자와 정책이 뒷받침한다면 제조업 관련 원자재들이 가장 먼저 상승할 개연성이 높음

■ 美 바이든 행정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제안,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리' 가격이 추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음

- 구리와 주석을 비롯한 일부 산업금속의 경우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급격히 오를 수 있음

<구리, 주석 등 주요 산업금속 재고 급감>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 원자재 가격의 상승 사이클은 상반기에 좀 더 치우쳐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하반기에는 수급 불균형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
- 인프라 투자와 같은 정책기대가 가격에 선반영 될 수 있음
- 중국 인민은행이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다소 중립적인 통화정책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 중국의 신용 사이클이 긴축으로 선회하게 된다면 관련 리스크가 일부 불거질 수 있음

III 중소기업의 부담과 대처방안

■ 상대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에 반영시키기 어려움

-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변동성이 높은 국면이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정부 차원에서는 기업 금융지원과 더불어 원자재 물량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원자재 비축물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방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축물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기업 공급망 활용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의 강화도 유효함

■ 중소기업의 경우 '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음

- 원자재가 주로 달러로 거래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가격과 환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

■ 정부와 기업차원의 대처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참고 1 '21년 원유 및 원자재 가격 현황

구분	원유가격(달러/배럴)			원자재 가격
	WTI ¹⁾	브렌트 ¹⁾	두바이 ¹⁾	CRB지수 ²⁾ (1967=100)
1월	52.1	55.3	54.8	174.2
2월	59.1	62.3	60.9	190.4

자료: KDI, 경제동향 주요지표('21.3)

- 1) 평균기준
- 2) 기말기준

참고 2 주요 원자재 가격('21.3.15 기준)

품목	거래소	인도월	단위	가격	주기
고철 생철	韓서울 (도매가)	현물	KRW/ton	375,000	월간
펄프 SBHK	韓 (도매가)	현물	USD/ton	655	월간
철광석 Fines	中 (수입가 CFR)	현물	USD/ton	165.44	일간
알루미늄	LME	현물	USD/ton	2,139	일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멀티도어 개념에 기반한 中企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을 통한 中企회생 지원 방안

※ 본 원고는 최수정,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포커스 20-10호 (2020)를 보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수정

I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위험 증가

- '21.1월 법인파산 신청은 3,789건으로 전월대비 증가
 - 이에 비해 회생단독신청건수는 전월대비 감소
 - 코로나 지속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리는 것 보다는 파산절차로 들어감을 알수 있음
- 중소기업 회생·파산 신청건수는 경기후행지수로 중소기업 도산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3월간 법인파산 신청건수>



주: 총계는 전국 총계

자료: 법원통계월보(2021)를 근거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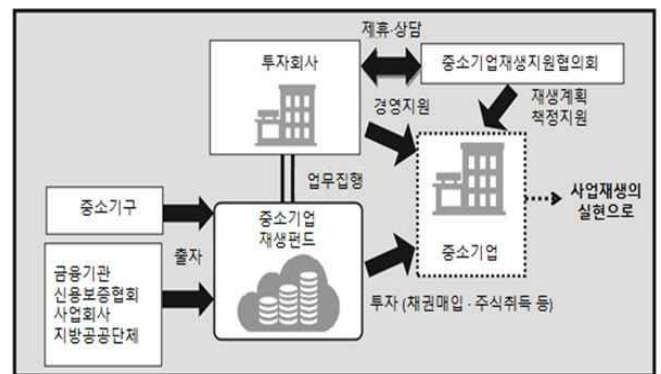
II 中企 구조조정제도 개관 및 한계점

- 우리나라 구조조정제도는 △공적(법정관리, 채무자 회생법) △사적(워크아웃, 기축법 등)이 있음
 - 공적 구조조정은 법원이 주도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 및 확정절차 등 신속성이 떨어짐
 - 사적 구조조정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
-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를 도입,
 - 회생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적 구조조정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 조기에 중소기업 회생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現회생절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유연성, 비공개성, 신속성 등 개선 기업정상화 성공률 제고

III 日 중소기업 전용 사적 정리제도

-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적 정리절차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활발히 이용
 - 회생을 위한 전문가 조언, 재생계획 수립, 재생계획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이고 체계적 지원 수행
 - 협의회 절차비용은 국가의 위탁사업비에서 지출
-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 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도산 선제적 대처
 - 복수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원금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사업자도 대상으로 포함
- 민간 투자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중소기구)가 출자, 재생펀드 운영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 절차>



자료: 中小企業庁(2020)

IV 신속한 中企회생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신속한 회생을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뤄져야 함
- 파산·회생절차로 가기이전 다양한 방식(door)으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멀티도어(Multi-Door) 체계 구축,
 - 법원과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 기관이 회생절차를 주도, 공정성·신속성·비용부담의 완화를 도모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의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절차까지도 연계될 수 있음

국내외 민간·공공 납품대금연동 사례 및 제도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김은하

I 납품대금연동제

-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하도급 혹은 수위탁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 급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
 -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납품단가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연동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II 민간 기업의 납품대금연동 사례

- 대-중소기업 간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제화된 연동제는 국내외 유례가 없음

국가	조정협의 근거법령	표준계약서
韓	O	O
美	X	X
日·EU	X	건설업종만 존재

- 민간거래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대해 한국만 유일하게 법적 근거를 마련
 - * 상생법 제22조의2, 하도급법 제16조의2
- 한국은 46개 업종에 대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일본과 EU이 건설업종에 한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은 계약서가 아닌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권장하는 약관이 폭넓게 활용됨
- 법에 의한 강제 수단 없이 개별 기업 간 계약서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음
 - 美 기업 다수는 원자재 가격 유동성에 대비해 'Index based pricing*' 방식으로 계약 체결 (Deloitte, 2016)
 - * 장기 공급계약, 원자재 변동 ±10% 시 가격 재협상 등

- 美기업과 연동제로 계약,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조정된 국내 업체 사례가 있으나, 반대로 연동 조정을 거절한 美기업 사례도 존재

연동조정을 거절한 사례

- 美대기업 1차 협력사 국내 제조 중소기업에게 거래 제한
- 제조 중소기업, 부품가격을 원가에 연동 요청
- 美기업 '전례가 없다'며 거절

자료: 동아일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11.8.18)'

- 국내 일부 대기업 역시 주요 원자재에 한해 계약 금액 연동을 계약 사항으로 포함

대상 원자재	▪ 철판, 플라스틱, 동, 귀금속 등
기준가격	▪ 원자재 공급사, 국제가(LME), 업체 구매가 등
조정방식	▪ 일정 주기별 혹은 시세 변동폭에 따라 협력사 요청시 수시 협의

III 공공조달의 납품대금연동 사례

-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90일)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혹은 지수조정률 3% 변동 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되며 조정 사유 발생에 따른 자동적 조정은 아님
 -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도 공공조달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 존재
 - 정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확산 노력 중
 - * 조달청은 공공 공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20.7)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외사례 비교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 배호영

I 일본

■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제화 완료

- '21.1월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 일본 의회 통과
- 본 법제화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영업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명령할 수 있게 됨
- 긴급명령 기간 동안 **협력 사업자는 1일 최대 6만엔 (63만원 내외)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명령 위반시 30만엔 (319만원 내외) 이하 과태료**를 부과
-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은 수도권 4개 지역(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과 지방자치단체 6개 지역(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 아이치현, 기후현, 후쿠오카현)이 있음 (3월 7일까지 연장)

구분	현행	개정안
시도지사 권한	요청·지시	명령
영업시간 단축 또는 휴업	협력금 지급 (행정명령)	협력금 지급 (법제화)
불응·위반시 벌칙	벌칙 없음 (점포명 공개만 가능)	과태료 부과 (30만엔 이하)

II 영국 · 캐나다 · 독일

■ 영국의 행정명령

-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 (SEISS :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통해 3개월분의 월평균 매출 80%를 지원(총 7,500파운드 한도: 1,140만원 내외)
-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이 42,000파운드였던 소상공인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은 3,500파운드(42,000파운드÷12개월)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개월분의 월평균 매출액 10,500파운드(3,500파운드×3개월) 80%인 8,400파운드를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총 지원한도가 7,500파운드이기 때문에 7,500파운드(1,140만원 내외)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캐나다의 행정명령

- '캐나다회복혜택제도(CRB: Canada Recovery Benefit)'를 통해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2주 단위로 1,000캐나다달러(87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최대 26주(최대 13회)동안 총 13,000캐나다달러(1,136만원 내외)까지 지원
- 다만, 소상공인의 CRB를 제외한 순소득(영업이익)이 38,000캐나다달러(3,322만원 내외) 이상인 경우 38,000캐나다달러 이상인 순소득 1캐나다달러(874원 내외)당 0.5캐나다달러(437원 내외)를 상환해야 하며, 연간 총 상환금액이 연간 총 CRB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함

■ 독일의 행정명령

- '임시원조제도(Ueberbrueckungshilfe III)'를 통해 2020년 12월 하드 록다운(Hard Lockdown) 봉쇄에 따른 2021년 상반기 **영업폐쇄 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최대 50만 유로(6억 7천만원)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해 최대 20만 유로(2억 6천만원 내외)를** 지원

구분	영국	캐나다	독일
제도명	자영업자 소득지원제도 (SEISS)	캐나다 회복혜택제도 (CRB)	임시원조제도 (Ueberbrueckungshilfe III)
지원 금액	3개월분의 월평균 매출 80%	2주 단위 1,000 캐나다달러 (87만원 내외)	·영업폐쇄기업 (소상공인 포함) : 최대 50만 유로 (6억 7천만원) ·매출급감기업 (소상공인 포함) : 최대 20만 유로 (2억 6천만원)
지원 한도	총 7,500파운드 (1,140만원 내외)	총 13,000 캐나다달러 (1,136만원 내외)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코로나19로 인해 생산과 소비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경기가 악화되었습니다. 음식점, 카페 등의 영업이 제한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상승하였고, 수입이 줄어든 만큼 소비도 줄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에는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과 같은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해 3월, 경기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상회하는 2조8000억 달러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많다보니 세계 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오늘은 쌀 1kg을 1,000원에 샀다면, 내일은 쌀 1kg을 2,000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수요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품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상품 가격은 높아집니다. 국민경제에서도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등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모든 재화와 용역의 합인 총공급이 감소하면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전반적인 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계소비 및 기업투자 증가에 따라 '수요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한편 비용 증가에 따라 공급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비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과 원자재의 공급이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비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그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도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공급차질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애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전지역 곡물 생산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예는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과거 석유파동 시절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글로벌 경제는 경기회복으로 물가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봅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화폐가 기능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과거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전쟁 배상금 지급을 위해 화폐 무한정 발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빵을 사기 위해 리어카에 화폐를 가득 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가치를 상실한 독일 마르크화>



출처 : Magyar Nemzeti Múzeum Történelmi Fényképtára, Budapest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연구주제 제안
- 기고 및 연구진 참여 신청 (이력서)
- KBIZ정책브리프 운영방안

기타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 주실 분들은
kbizlab@kbiz.or.kr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